



##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생애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극복의 연속성 - 테제와 안티테제에서 종합으로의 고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Die Bedeutung des Transzendierens in Leben und Werk Hermann Hesses – Der Polaritätsgedanke und die Synthese als Aufhebung

---

저자 (Authors)	장정자 Chang Joung-Ja
출처 (Source)	<a href="#">헤세연구 12</a> , 2004.12, 5-22 (18 pages) <a href="#">Hesse-Forschung 12</a> , 2004.12, 5-22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헤세학회</a>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8634">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8634</a>
APA Style	장정자 (2004).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생애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극복의 연속성. 헤세연구, 12, 5-22.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1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생애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극복의 연속성

- 테제와 안티테제에서 종합으로의 고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장 정 자 (동덕여대)

헤세 자신의 생애와 작품 세계는 양극으로 대립된 세계, 자연과 정신, 감성과 이성, 명상과 역동, 動的인 것과 靜的인 것, 서양과 동양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대립된 두 개의 폭은, 여러 개의 대립된 세계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헤세에서 나타나는 양극성은 헤세 자신의 출생과 삶에서 우선,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또 여기서 파생되는 헤세의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작품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헤세의 출생과 양극성의 근원

헤세는 자신의 출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의 양친의 만남 아버지는 발트인 어머니는 슈비벤인  
두 분은 혈통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정신으로는 남매였으니..  
이렇게 나의 유년기는  
나를 두 개의 고향에 뿌리를 내리게 했다네.  
Wie meine Eltern sich fanden, er Balte, sie Schwäbin  
Beide aber im Blute fremd sich  
dem Geist nach Geschwister...  
So auch hat meine Kindheit  
Mich zwei Heimaten eingepflanzt.<sup>1)</sup>

1) Zitiert nach: F.W. Wentzlaff-Eggebert: Weg nach Innen, Zur Gedenkfeier der Uni. Mainz, gehalten am 2. Juli 1957 und im Stil der Rede belassen, Napoli 1958, S. 2.

발트제국 에스토니아의 독일인 의사 카를 헤르만 헤세 Carl Hermann Hesse 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sup>2)</sup>, 슈바벤인으로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말라얄람 사전 Malajalam-Lexikon 편찬에 몰두했던 헤르만 군데르트 Dr. Hermann Gundert 의 딸로, 인도에서 태어난 어머니 사이에서 헤세는 어려서부터 슈바벤 억양, 혹은 발트억양으로 불리는 양친의 기도를 함께 들으며 자랐다. '헤세가 뿌리를 내려야 했던 두 개의 고향은 헤세의 양면성의 근원이며, 갈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국 선교사들의 방문, 심지어는 불교승려들의 방문과 그들의 찬불가와 경구들의 리듬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것에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헤세는, 그러나 바로 같은 양친의 집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경건주의 기독교 정신을 유일한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 속에서 성장했다. 고향 슈바벤지방의 자연과 풍경 속에 안주하며, 그 속의 꽃들, 동물의 세계 그리고 하늘과 구름에서 다정한 고향을 만끽하면서도, 동양의 한없이 경이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의 갈등,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헤세를 괴롭히며 정신적인 방황을 겪게 했으며, 그를 失郷人으로 만들었다. 경건주의 기독교와 불교, 서양과 동양의 지혜로 헤세는 思考의 지평은 넓힐 수 있었지만, 반면에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갈수록 첨예하게 위협적으로 그에게 다가왔다<sup>3)</sup> 헤세는 양극성을 인간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작품 속에서도 이를 그대로 형상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육신과 정신 사이에서  
 섬약한 창조의 이들은 머뭇거리고 있네  
 So zwischen Mutter und Vater,  
 So zwischen Leib und Geist  
 Zögert der Schöpfung gebrechlichstes Kind, [...]<sup>4)</sup>

2) Vgl.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Reinbek bei Hamburg(Rowohlt) 1985, S. 9 : 칼 헤르만 헤세는 헤세가 한번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와 의 서신광래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정원, 마을까지 소상하게 마음에 담아 들 정도로, 항상 가까이여서 그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외할아버지, 헤르만 군데르트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Vgl. F.W. Wentzlaff-Eggebert, Weg nach Innen, B. a. O., S. 2ff.

이중성, 양극성이 인간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에게 이러한 “생의 이중 멜로디”를 함께 언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만큼, 그의 언어에 대한 회의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sup>5)</sup>

[...]이 이중창 그리고 영원히 전진해 나가는 반명제, 이 渡路를 나는 나의 소재, 언어로 표현하고자 상처투성이가 되어 노력하지만, 이를 수가 없다

[...]diese Zweistimmigkeit und ewig schreitende Antithese, diese Doppellinie möchte ich mit meinem Material, mit Worten, zum Ausdruck bringen und arbeite mich wurd daran, und es geht nicht.<sup>6)</sup>

이것은 헤세가 『요양객 Kurgast』에서 언어의 한계에 절망하며, 다른 예술양식을 동경하는 마음을 서술한 것이다. 『싯다르타 Siddhartha』에서 이미 ‘가르침이란 불가능하며, 언어란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항상 표현되는 순간 약간씩 달라지며, 기만되어지는 것’<sup>7)</sup>이라고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는 언어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

자연과 정신과의 두 양극사이에서 생은 마치 무지개의 기교처럼 명랑하고, 윤희 하듯 완성되어 묘사되어야 한다고 헤세는 생각한다. 왜 이 두개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형제처럼 나란히 함께 존재할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두 세계를 쫓아 안고, 그것을 통합할 수 없는가? 라고 그는 한탄한다.<sup>8)</sup> 언어의 한계에 대한 절망은 『싯다르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작품에서 양극화된 인물구조를 통해서 단일화된 전체를 보여주고자 했던 헤세의 노력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은 대립된 양극을 하나, 하나 채워가며, 제 삼의 고양된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 모두를 수용하는 만년의 작품에서 그 해답을 볼 수 있다.

4) Hermann Hesse: Gedicht Besinnung, GW 1, S. 104.

5) Vgl. 장정자: 헤세의 언어회의와 언어유희, in: 헤세연구 제5집 2004, S. 5ff. : 이 논문에서 헤세의 언어에 대한 회의와, 다른 예술양식—미술과 음악—에 대한 헤세의 동경, 실제로 다중 예술가—작곡가로서, 화가로서—이기도 했던 헤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6) Hermann Hesse: Kurgast, GW 11, S. 111.

7) Vgl. Hermann Hesse: Siddhartha, GW 5, S. 447 u. S. 467.

8) Vgl. 장정자: 헤세의 언어회의와 언어유희, a. a. O., S. 21.

## II. 인물구성 - 양극으로 나눔의 원칙

- 헤세 생애 최초의 위기 - 청소년기의 헤세

헤세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을 흔히 “양극으로 나눔의 원칙 das Prinzip der polarisierten Spaltung”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한 인간 내면의 이중성이 그의 작품 속에서 서로 상반된 두 인물로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헤세 자신의 자전적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는 초기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에서도 이미 양극으로 나눔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헤세는 자신의 내면의 이중 구조를 각각 두 인물, 한스 기벤라트 Hans Giebenrath 와 헤르만 하일너 Hermann Heilner 에게 나누어 형상화하고 있다.

기벤라트는 재능이 있고, 성실하지만, 항상 두통에 시달리며, 소심하게 어른들의 기대를 거역하지 않으려고 어린애로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자신을 잊어가며, 최선을 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과, 생의 목표를 잃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을 앓게 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는 헤세 성격의 한 단면 즉, 말없이 신중하고, 자기 자신에 침잠하며, 꿈에 잠기거나, 자연의 색깔과 향기에 도취하며, 낚시를 좋아하고, 그러나 두통에 시달리며 쉽게 상처받는 성격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하일너는 헤세의 “격렬한 힘, 강한 혁명적인 정신, 질식할 것 같은 환경의 모든 장애에 대항하여 자신을 관철시키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창조적인 추진력(動因)<sup>9)</sup>을 지니고 있으며, 헤르만이라는 이름까지도 헤세와 같은 하일너는, 헤세처럼 세미나를 이탈하여 거둬드는 방황과 인생의 고뇌를 겪으며,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라도 한 당당한 인간이 되었고, 문학적인 소명을 이룰 수 있었다<sup>10)</sup>’. 헤세의 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본구조인 이중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하인츠 슈톨테Heinz Stolte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물일치 하나이면서 같은 인격체의 양극성으로서 감지된 것이, 형상화된 작품 속에서는 서로 양극화되고, 동시에 서로 반항하며, 보완적인 두 인물로 나누어 진다.

9) Heinz Stolte: Hermann Hesse, Weltschmerz und Lebensliebe, Hamburg 1971, S. 44.

10) Vgl. Hermann Hesse: Unterm Rad GW 2, S. 116.

Was im eigenen Inneren als spannungsvoller Widerspruch, als Polarität ein und desselben Charakters empfunden wird, zerlegt sich im gestalteten Werk in zwei polarisch einander zugleich widersprechende und ergänzende Personen.<sup>11)</sup>

그네프코브 Edmund Gnefkow는 양극으로 나뉘어 진 이중인물의 등장은 바로 “헤세 자신의 양극성 das Doppelpolige seiner Persönlichkeit”<sup>12)</sup>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초기 작품에서 헤세가 두 상반된 인물 속에 자신의 이중적 내면세계를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벤리트와 하일너의 방향을 통해서 어찌면, 수레바퀴 밑에 깔릴 수도 있었던<sup>13)</sup> 유년기 헤세 자신의 생의 위기를 하일너처럼 강한 고집과 추진력, 창조적인 집념으로써 이겨낸 자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4세의 헤세가 1881년 바젤의 유아학교 Basler Kinderschule 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미 그의 과격하고, 권위에 반항하는 열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부터 길들이기 어려운 소년의 교육을 위해서 헤세의 부모는 끊임없이 부딪치는 문제와 고통, 근심을 안게 된다. 이 고집 센 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요양소에 맡길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sup>14)</sup> 당시 헤세의 어머니 Marie Hesse 가 아버지 Johannes Hesse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근심을 읽을 수 있다.

그 애는 활기 있고, 강인함을 지녔으며, 강한 의지를 지녔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네 살된 어린애로서는 놀라울 만한 사유능력을 지녔어요. 이것이 어디로 귀결될까요? 그 애의 극단적인 癡走과 정열적인 폭종과 노도, 여기에 맞서야 하는 이 정신적인 싸움이 제 생일을 고통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존심 강한 생각을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귀하고, 찬란한 무엇인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이 잘못되거나 혹은 교육의 역량이 못 미칠 경우, 이 열정적인 애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Der Bursche hat ein Leben, eine Riesenstärke, einen mächtigen Willen, und wirklich auch eine Art ganz erstaunlichen Verstand für seine vier Jahre. Es zehrt mir

11) Heinz Stolte: Hermann Hesse, a. a. O., S. 44.

12) Edmund Gnefkow: Hermann Hesse, Freiburg 1952, S. 20.

13) Unter die Räder kommen 수레바퀴 밑에 깔리다 즉, 꺾일하다는 의미이지만, 헤세는 4격을 쓰지 않고, “Untern Rad” 3격을 씬으로써 느낌을 다르게 한다.

14) Vgl. Rudolf Koester: Hermann Hesse, Stuttgart (Sammlung Metzler) 1975, S. 17.

ordentlich am Leben, dieses innere Kampfen gegen seinen hohen Tyrannengeist, sein leidenschaftliches Stürmen und Drängen., Gott muß diesen stolzen Sinn in Arbeit nehmen, dann wird was Edles und Prachtiges draus, aber ich schaudere beim Gedanken, was bei falscher oder schwacher Erziehung aus diesem passionierten Menschen werden konnte.<sup>15)</sup>

헤세는 괴핑엔 라틴어학교 Goppingen Lateinschule를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장래가 약속된 확실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는 1년만에 마울브론 신학교 Evangelisches Klosterseminar Maulbronn에서 돌발적으로 도주하게 되고, 이때부터 헤세는 신경쇠약과 부모와의 갈등에 시달리고, 신경정신과 요양소를 전전하며,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 헤세가 서점직원으로 마침내 정착할 때까지(1895 ~ 1899) 헤세는 위기의 시기, '폭풍노도의 시기'<sup>16)</sup>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유년기의 헤세 전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헤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학교 문제, 시춘기 문제와 연관된 유년기, 청소년기의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만년의 작품 속에서도 여전히 이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 서부터 이미 헤세의 내면세계로의 길이 파악되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청소년기에 겪은 내면적 갈등이란 무엇이었을까? 『데미안』 서문에서 “나는 정말이지 나의 내 부모부터 소생하고자 하는 바를 살고자 했을 뿐이다”<sup>17)</sup> 라는 말은 자기실현 Selbstentfaltung을 위해 당시 헤세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가를 대변하고 있다.

‘13세 때 헤세는 이미 자신이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다’<sup>18)</sup>고 말한 바 있다. 13세 때면 헤세가 마울브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괴핑엔에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때이다. 다음 해에 시험에 합격해서 입학한 신학교에서 헤세가 1년도 안되어 신학교를 탈출한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견해가 많지만, 헤세로서는 장래가 보장되고, 인정받는 직업인으로서의 확실한 진로가, 자신이 시인이 되고자 하는

15) Adele Gundert: Marie Hesse, Ein Lebensbild in Briefen und Tagebüchern, Stuttgart 1884, S. 187; Brief (Basel, 2. Aug. 1881) an Johannes Hesse.

16) Rudolf Koester: Hermann Hesse, a. a. O., S. 21.

17) Hermann Hesse: Demian, GW 5, S. 7.

18) Vgl. Hermann Hesse: Kurz gefasster Lebenslauf GW 6, S. 393f.

소망과는 거리가 멀었고, 권위적인 부모의 설득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내면적, 외향적 갈등을 갖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헤세나 헤세의 부모에게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가 헤세에게는 문학적 소망을 쫓는 풍요로운 배움의 시기였으며, 『낭만적 노래 Romantische Lieder』, 『자정지난 한 시간 Eine Stunde hinter Mitternacht』 등 최초의 문학적 결실을 나타낸 시기이기도 했다.

### III. 죽음과 탄생의 이중멜로디

- 헤세 생애의 두 번째 위기 - 중, 장년기의 헤세

『페터 키멘친트』(1904)로서 헤세는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 결혼을 했고, 세 아들이 태어났다 — 안정된 시기를 보냈다. 가이엔호펜 Gaienhofen에서 보낸 8년간의 생활은 헤세 인생에서 가정과 창작활동 모두 생산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로 헤세는 '견갑을 수 없는 전쟁의 잔인성과 이 시대의 정신적 위기를, 또한 '자신과 세상과의 갈등'을 홀로 고립된 채, 완전히 개인적인 고통으로서 체험하며, 가정적인 불행까지도 겹쳐 겪게 된다. 헤세는 그 당시 자신의 상황을 마치 살아남기 위해 붕괴되는 벽 사이를 달리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가족도 집도 친구도 조국도 그리고 그의 시민생활도 모두가 뿌리째 흔들려 버렸다. "당시 나는 매일 작별을 고향하며 살았다"고 후에 헤세는 회상하고 있다.<sup>19)</sup>

헤세는 한 인간으로서, 또한 예술가로서 이제까지 그의 역량과 사고의 틀을 흔들어 놓는 내적, 외적 실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1914년 이후 1930년대까지의 소위 '죽음과 생성의 시기 Storb-und-werde-Epoche'<sup>20)</sup>가 시작된 것이다. 헤세는 다시 한 번 생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를 새로운 생성의 시대

19) Vgl. 장정자 『데미안』, **출판**을 넘어선 人間像, in: 이인웅 편역, 헤르만 헤세(작가론 총서, 문학과 지성사) 1980, S. 101ff.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음.

20) Rudolf Koester: Hermann Hesse, a. a. O., S. 35, und Vgl. 작성자註: Johann Wolfgang von Goethe, GW 2, (Hamburger Ausgabe) 8.Aufl. 1967, S. 18, Gedicht *Seitige Sehnsucht* in: *West-östlicher Divan, Buch des Sängers* "Und so lang du das nicht hast, Dieses: Storb und werde! [...]"에서 유래함



로 바꾸어 놓는다. 충격 속에서 헤세는 심리분석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되며, 본질적이고 오랜 동안 지속될 새로운 방향 모색, 말하자면 그 자신과 자신의 세계관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헤세는 이 시기에 그의 창작의 절정기를 맞게 된다.<sup>21)</sup>

헤세의 심리상담을 맡았던 랑 박사 Dr. Lang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양극성을 인지하며, 두 세계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게 되는 시기이다. 반쪽세계—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神, 이프락사스 Abraxas, 단일성과 전체성을 동경하는 『데미안』(1919)은 바로 이러한 융 C.G. Jung의 심리학에 기초한 랑 박사와의 심리상담과 그 후 이어지는 융과의 서신교환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2)</sup>

다음 작품 『싯다르타』(1922)에서 헤세는 양극을 극복하고 단일성을 이룬 주인공을 보여준다. 해탈에 이른 싯다르타는 '물질이나 생성의 고통에서 벗어난 순수한 정신적 존재로서 완벽한 존재 그 자체, 즉, 神이 되었다'.<sup>23)</sup> 신이 된 싯다르타는 동시에 세계이다. 그는 단일의 세계, 즉 지존의 세계에 도달했고, 반대로 세계와 존재는 그의 내면에 흡입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성과 갈등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계와 나, 나와 세계의 합일 속에 이루어지는 혼연일치 unio mystica인 것이다. 그러나 梵我一如의 깨달음은 禪을 통해 이루어진 觀照의 세계일 뿐, 헤세 자신의 말처럼 '刹那'이며,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sup>24)</sup> 뤼티 Hans Jürgen Lüthi가 지적하듯이 이는 '動的인 삶 vita activa'를 희생하고 얻어진 것이다.

싯다르타는 관조의 삶, 수동적인 인식을 위해 일체의 행위를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유혹과 죄악에 얽히지 않으려 한다.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영의 흐름을 직관하는 데 몰두할 뿐이다. 그[헤세는 완전히 비역사적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신비주의적 전일시인 것이다. 싯다르타의 해탈은 대단하고,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결말인 것이다.

21) Vgl. Rudolf Koester: Hermann Hesse, B. A. O., S. 35.

22) Vgl. 장경자: 『데미안』, 苦悶을 넘은 人間像, B. A. O., S. 101ff.

23) Hermann Hesse: *Ein Stückchen Theologie*, GW 10, S. 77.

24) Hermann Hesse: ebd., S. 81.

Siddhartha verzichtet auf die Tat, auf Verstrickung und Verschuldung in der Welt zugunsten des passiven Schauens, der vita contemplativa. Fern vom Strom der Geschichte ist er nur noch der Schau des Lebensstromes hingegeben. Er fährt ein völlig geschichtsloses Dasein, es ist eine mystische Idylle. Die Siddhartha-Lösung erscheint so in ihrer ganzen Größe und Bedeutsamkeit, aber eben auch in ihrer Fragwürdigkeit.<sup>2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Narziss und Goldmund*』 역시 『싯다르타』에서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다. 양극으로 나뉘어 설정된 두 인물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나르치스가 금욕과 추상의, 정신적인 수련의 소명을 받았다면, 골트문트는 섬세하고 예술가적 감각의 소명을 받았다. 두 양극이, 한편에서는 금욕이, 다른 한편에서는 풍요로운 삶의 체험이, 정신과 자연이, 모성적인 것과 부성적인 것이, 孤立과 開放性이 선명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헤세는 금욕주의로 관조하는 나르치스의 삶을 인정하고 있으나, 데미안에서처럼, 자기 자신에 충실한 골트문트의 위험과 잔악으로 가득 찬, 그러나 훗날 나는 골트문트의 삶에 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트문트가 겪는 모든 방황과 실패는, 그 길이 비록 죄와 타락의 길을 거치더라도, 의미 있는 것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르치스는 이에 반해 응집되고 발전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든 생성의 창조자인 어머니 상을 조형하려 평생 동안 온 세상을 떠돌던 골트문트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죽어 가면서—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골트문트는 실패한 예술가이다.—나르치스에게 마치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모습으로 “내 손이 그녀를 만들고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로 나를 만들고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러나 나르치스 어머니를 갖지 못하고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머니 없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 또한 어머니 없이 인간은 죽을 수도 없어”<sup>26)</sup> 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오로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구도하고자 세속생활 *Weltleben*에 빠져들었던 싯다르타가 속세에서 영원성 대신에 ‘공허한 허무’만을 얻는 데 반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생의 마력이 그를 충동하는 대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골트문트의 세속

25) Hans Jürg Lithi: Hermann Hesse, *Natur und Geist*, Stuttgart 1970, S. 73f.

26) Hermann Hesse: *Narziss und Goldmund*, GW B, S. 319-320.

생활은 이러한 '감각세계의 몰입'을 통해서도, 그에 따른 모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ダイナミック한 생 그 자체로서 신성화 된다. 골트문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감한 시도로서의 생, 비쿠스적인 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단일성을 체득한 싯다르타의靜的이며, 절제된 관조의 세계와 다른 양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몰태우며 삶으로써,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만족하게 죽어가는 골트문트나, 또한 우주의 단일성을 체득, 신이 된 싯다르타는 전체가 아니라 일면성의 완성일 뿐이며, 둘 다 논란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sup>27)</sup>

#### IV. 생의 변증법 - 대립과 승화

##### - 만년의 헤세

『데미안』, 『싯다르타』 그리고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이래로 헤세는 이 편협한 종결, 즉, 한편으로는 '감각세계의 몰입'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력 없는 텅 빈 공간에서의 질식'을 더 이상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유리알 유희 Glasperlenspiel』이다.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교육주 카스탈리안은 인생의 고난과 투쟁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며, 알고자 하지도 않는 순수 정신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지구상의 대다수의 인간이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모험적인, 그리고 위험하며, 보장받지 못한 무질서함' 속에 사는데 반해서 카스탈리안의 생활은 정신과 진리에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신의 고양된 세계에 크네히트 Knecht 가 속하고, '일상적 자연스러운 생'의 세계에 데지그노리 Designori 가 속한다. 두 개의 세계와 두 개의 원칙이 각각 크네히트와 데지그노리에 상징된다.

그러나 만년에 이른 헤세는 더 이상 단일성에 이르는 해답을 찾지는 않는다. 두極은 대립된 채로 그대로 인정되고 수용된다. 금욕과 추상의 정신적인 수련을 고수하는 나르치스와는 달리 크네히트는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의 단편성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두 개의 세계를 포용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한다. "왜 이 두 세계는 서로

27) Vgl. Malte Dahrendorf: Der "Entwicklungsroman" bei Hermann Hesse, Hamburg 1955 Diss., S. 170: "[...] Unehrlichkeit dieser Lösung. Später ist es dann der Steppenwolf, in dem der Mensch zwischen unzähligen Polpaaren hin- und hergerissen dargestellt [...] das scheinbar unverrückbare In-der-Einheit-Stehen Siddharthas korrigiert werde."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형제처럼 나란히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 두개의 세계를 묶어 안고, 통합할 수 없는가?<sup>28)</sup> 그리고 크네히트는 자문한다. 크네히트의 이러한 동경은 그를 새로운 세계, 데지그노리의 일상의 자연 세계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생의 체험이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크네히트는 죽는다. 헤세는 이러한 결말을 통해서 정신과 삶 사이에 종결된 종합으로서의 문제 해결을 유보한다. 『유리알 유희』에서의 개방된 결말을 통해 '헤세는 단순화된 해결에서 오는 심각한 모순을 덮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정직성<sup>29)</sup>을 보여준 것이다.

두 개의 극은 합일성을 향한 동경이며, 움직임의 시초가 된다. 원시 종교에서는, 모든 사물의 탄생 기원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생성의 흐름을 근본적으로는 하나였던 것이 분리됨으로써 그 양분된 부분들이 다시 합치고자 하는 갈망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sup>30)</sup> 양극의 법칙은 그러나 승화의 다른 법칙을 내포하고 있다. 과테는 이것을 색채이론 Farbenlehre에서 이중원칙 Doppelgesetz으로 설명한다. '두 개의 순수한 근원적인 대립은 전체의 기초가 된다. 이 과정에서 승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 둘은 새로운 세 번째로 접근하게 된다.'<sup>31)</sup> 헤겔의 변증법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명제 These 와 반명제 Antithese, 그리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승화라 할 수 있는 종합 Synthese 이다.

헤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체득하고자 하는 생과 정신에 가까워 지고자하는 관조 사이의 대립은 인간 삶의 명제와 반명제를 이루고 있다. 생이 이 대립을 조화시키는 곳에 종합이 발견되며 이것은 다시금 명제로서 다른 반명제에 의해 대립된다. 양극의 平衡은 순간적이다. 이 순간은 간혹 체험되어질 수 있는, "몇 초 동안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착각하는"<sup>32)</sup> 조그만 행운인 것이다. 자신이 고향에 있다고 느끼는 착각의 순간 속에는 이미 새로운 발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쇠타르트에서의 자기완성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인간이란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28) Hermann Hesse: *Glasperlenspiel*, GW 9, S. 104.

29) Otto Friedrich Bollnow: *Unruhe und Geborgenheit*, Stuttgart 1953, S. 59.

30) Vgl. Gerhard Krichhoff: *Das Bild des Menschen in Hermann Hesses Dichtung*, Freiburg 1961 Diss., S. 56.

31) Vgl. F.W. Wentzlaff-Eggebert: *Weg nach Innen*, a. a. O., S. 2.

32) Hermann Hesse: *Ein Stückchen Theologie*, GW 10, S. 61.

바리보아아 할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어져 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매 단계에서는 전환점이 이루어지며, 모든 단계는 高揚으로의 길인 것이다. 고테는 이러한 인간의 방황을, 『파우스트』에서 높은 의지—창조주—에 의한, 또한 높은 의지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동경으로 해석한다. 인간은 그 본질상 초월성을 향해 옮겨가는 *transzendierend* 존재이며,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와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세계정신의 움직임인 것이다.

이러한 思惟를 헤세는 「단계」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명랑하게 공간에서 공간으로 건너가야 한다,  
고향은 물론,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서,  
세계정신은 우리를 물집아 때고, 속박하려 하지 않으니  
그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고 넓혀 줄 뿐이라네  
Wir sollen heiter Raum um Raum durchschreiten,  
An keinem wie an einer Heimat hangen,  
Der Weltgeist will nicht fesseln uns und engen,  
Er will uns Stufum Stufe heben, weiten.<sup>33)</sup>

인간의 움직임은 세계의 움직임과 하나가 된다. 세계정신이란 영원히 생동하는 움직임이며, 그럼으로써 피조물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도달된 목표는 언제나 그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모든 체험은 그러나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할 진지한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은 “절대적으로 고향이 없고, 영원한 방랑자이며, 그의 유일한 미덕은 자신이 대하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개방된 마음의 준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자신을 얽매어서는 안 되며, 모든 부분적 목표도 하나하나의

33) Hermann Hesse: Gedicht *Stufen* aus *Josef Knechts hinterlassene Schriften* in: *Glaspenspiel*, GW 9, S. 484, und Vgl. S. 412 Debatte zwischen Tegelarius und Knecht: "Euer Gedicht [...], das Ihr [Knecht] mit dem Märschbefehl 'Transzendieren!' überschrieben und dessen Titel Ihr später, Gott sei Dank, durch einen sehr viel besseren [Stufen] ersetzt habet, hat mir nie so recht gefallen, weil es etwas Befehlendes, etwas Moralisierendes oder Schulmeisterliches hat."

단계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것에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sup>34)</sup> 생명의 강조, 앞으로의 전진은 인간이 정착되어 머무르게 될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가 하나의 생의 테두리에 고향을 이루고  
 친숙하게 머무르자마자 나태가 우리를 위협한다.  
 이것을 떨쳐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래서 여정을 계속하는 **종만**이  
 인간을 마비시키는 타성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있다.  
 [...]
   
 우리를 향한 생의 외침은 결코 끝나지 않을지니..  
 재 마음이여, 작별을 씀하고 건강해지라!  
 Kaum sind wir heimisch einem Lebenskreise  
 Und traulich eingewohnt, so droht Erschlaffen,  
 Nur wer bereit zu Aufbruch ist und Reise,  
 Mag lähmender Gewohnung sich entrafen.  
 [...]
   
 Des Lebens Ruf an uns wird niemals enden..  
 Wohlan denn, Herz, nimm Abschied und gesunde!<sup>35)</sup>

모든 생의 부름에 마음은 작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네히트가 처음에 'Transzendieren'으로 제목을 붙였다가 후에 'Stufen'으로 제목을 바꾼 이 **詩**의, 마치 행군의 명령같이 높은 인간으로의 끊임없는 요구는 테굴라리우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명령조이며, 도덕적 순화와 같이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전진하며, 한 단계씩 고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헤세는 자신의 마지막 대작 *magna opus* 인 이 소설에서 더 이상 양극 사이의 단일화된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단계, 단계마다 승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시의 제목을 '단계'로 바꾼 것은 이러한 이유이며, 크네히트가 반쪽의 다른 세계에서의 시작이 준비되었을 때 죽는 것으로 작품을 종결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영원히 노정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행복하건, 고난 속에서 건 어느 것도 우리의 고향은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영원히 노정에 서 있고, 영원히 손님일 뿐이기 때문이다. 단 한번 돌로 응집되

34) Malte Dohendorf: Der "Entwicklungsroman" bei Hermann Hesse, a. a. O., S. 170.

35) Hermann Hesse: Gedicht *Stufen*, GW 9, S. 484.

기를, 단 한번 지속되기를 동경하며, 이를 향해 영원히 움직이지만, 불안한 공포만이 남을 뿐, 우리 길에는 단 한번 휴식도 허용되지 않는다<sup>36)</sup>라고 헤세는 그의 시, 「탄원 *Klage*」에서 한탄하고 있다.

헤세의 이러한 사고의 근원은 괴테의 색채이론 — ‘양극의 대립과 발전된 제 삼의 단계’ — 과 몇 편의 시, 그리고 「파우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의 방황을 창조주에 의한 창조주를 향한 동경으로 해석하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sup>37)</sup>고 파우스트의 방황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인간이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해야 하며, 존재에 정착하려는 것은 모두 無로 와해될 수 밖에 없다’<sup>38)</sup>고 노래하고 있다. 특히, 괴테의 「복된 동경 *Selige Sehnsucht*」은 헤세의 「단계」와 서로의 의미를 보충하며 보완적으로 읽을 수 있다. 괴테는 「복된 동경」에서 빛을 따라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홀린 듯이 날아와 불꽃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타 죽는 나비처럼, 빛을 향한 열정으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란 높은 빛과의 합일로부터 제외되어 어둡고 침울한 자상의 존재일 뿐<sup>39)</sup> 이라고 쓰고 있다. 모든 생성은 죽음으로부터 탄생에의 긍정이며, 동시에 탄생으로부터 죽음에의 긍정인 것이다. 그래서 헤세는 ‘모든 생의 부름에 마음은 작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sup>40)</sup>고 「단계」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한다. 이렇게

36) Vgl. Hermann Hesse: Gedicht *Klage*, aus *Josef Knechts hinterlassene Schriften* in: *Glasperlenspiel*, GW 9, S. 172: “So füllen Form um Form wir ohne Rast, / Und keine wird zur Heimat uns, zum Glück, zur Not, / Stets sind wir unterwegs, stets sind wir Gast, [...] Einmal zu Stein erstarren! Einmal dauern! / Danach ist unsre Sehnsucht ewig reg, / Und bleibt doch ewig nur ein banges Schauern, / Und wird doch nie zur Rast auf unsrem Wege.”

37) Johann Wolfgang von Goethe: *Raust* GW 3, S. 18: “Es irrt der Mensch, so lang er strebt.”

38) Vgl. Johann Wolfgang von Goethe: Gedicht *Ein und Alles* GW 1, S. 368: “Es soll sich regen, schaffend handeln, / Erst sich gestalten, dann verwandeln, / Nur scheinbar steht's Momente still [...] / Dann alles muß in Nichts zerfallen, / Wenn es in Sein beharren will.”

39) Vgl. Johann Wolfgang von Goethe: Gedicht *Selige Sehnsucht*, GW 2, S. 19: “Und so lang du das nicht hast, / Dieses: Stirb und werde! / Bist du nur ein trüber Gast, / Auf der dunklen Erde.”

40) Hermann Hesse: Gedicht *Stufen*, GW 9, S. 483: “Es muß das Herz bei jedem Lebensrufe / Bereit zum Abschied sein und Neubeginne, [...]”

헤세 자신이나, 헤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끊임없는 단계들 그리고 승화로 이끄는 생의 과정을 통해서 고양된 길을 걷는 존재인 것이다.

험난한,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던  
 인생의 가을에  
 지나온 길을 회상하는 사람에게  
 잔치나 죽연은 가당치 않다네,  
 명성이나 명예로운 갈채에 대한 생각 또한 당치않은 일  
 그에게는 靜寂을 찾는 일, 자기 자신을  
 산화시키고, 숲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터  
 소박하고 경건하게 [자연의]법칙에 따르고  
 신들에 순종하기 위하여...  
 Wer im Herbst eines mähnsamen,  
 Doch nicht glücklosen Lebens  
 sich... der einstigen  
 Wege erinnert...  
 Dem liegt fern der Gedanke an Feste und Feiern,  
 Fern auch die Lust an Ruhm und ehrendem Beifall,  
 Ihm liegt näher die Stille zu suchen, sich selbst  
 auszusuchen und in die Wälder zu gehen,  
 Um in Einfalt und Ehrfurcht sich den Gesetzen,  
 Sich den Göttern zu stellen...<sup>41)</sup>

“험난한”,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할 수는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리는 양극의 평가는 그의 전기와 작품이 입증해 주듯이 헤세가 그의 생애에서 겪는 저 위협적인 긴장 갈등이 결국 그의 작품을 한 단계씩 높여주고, 헤세로 하여금 더욱 심오하게 내면의 세계를 향한 길을 걷도록 고양시키는 법칙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1) Zitiert nach: F.W. Wentzlaff-Eggebert: Weg nach Innen, a. a. O., S. 1 und Vgl. 작성자註 이 시는 헤세가 1936년 자신의 생일과 연관해서 쓴 것으로, *Stunden im Garten*에 수록되어 있으며, 22년 후 1957년 7월 2일 헤세 생일어 번츠라프 여거버르트 교수의 주사에서 인용되었다.



## 참고문헌

### 1. Primärliteratur

Hesse, Hermann: Gesammelte Werke in 12Bd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2,

von Goethe, Johann Wolfgang: Gesammelte Werke in 14Bdn., Hamburg (Hamburger Ausgabe) Bd.1, 9.Aufl. 1969; Bd.2, 8.Aufl., 1967; Bd.3, 8.Aufl. 1967,

Gundert, Adele: Marie Hesse, Ein Lebensbild in Briefen und Tagebüchern, Stuttgart 1884,

### 2. Sekundärliteratur

Bollnow, Otto Friedrich, Unruhe und Geborgenheit, Stuttgart 1953,

Dahrendorf, Malte, Der "Entwicklungsroman" bei Hermann Hesse, Hamburg 1955  
Diss,

Gnefkow, Edmund: Hermann Hesse, Freiburg 1952,

Kirchhoff, Gerhard: Das Bild des Menschen in Hermann Hesses Dichtung, Freiburg 1951 Diss,

Koester, Rudolf: Hermann Hesse, Stuttgart (Sammlung Metzler) 1975,

Lüthi, Hans Jürg: Hermann Hesse, Natur und Geist, Stuttgart 1970,

Stolte, Heinz: Hermann Hesse, Weltschau und Lebensliebe, Hamburg 1971,

Wentzlaff-Eggebert, F.W., Weg nach Innen, Napoli 1958,

Zeller, Bernhard: Hermann Hesse, Feinbek bei Hamburg(Rowohlt) 1963,

장정자: 헤세의 언어회의와 언어유희, in: 헤세연구 제 5집 2001,

장정자: 『데미안』, 善惡을 넘어선 人間像, in: 이인웅편저, 헤르만 헤세 (작가론총서, 문학과 지성사) 1980,

## Zusammenfassung

### Die Bedeutung des Transzendierens in Leben und Werk Hermann Hesses

- Der Polaritätsgedanke und die Synthese als Aufhebung

Chang, Joung-Ja (Dongduk Frauen-Uni)

Der Begriff der Polarität, die das Leben und die Werke Hesses bestimmt, zeigt sich in vielen Gegensätzen: Natur und Geist, das Statische und das Dynamische, *vita activa* und *vita contemplativa* ... Hesse versucht aus diesem Begriff ein Gestaltungsprinzip zweier Antipoden zu machen. Wie der Begriff der Polarität so stellen auch die Doppelgestalten in seinen Werken eine Grundstruktur dar. Die inneren Gegensätze eines Individuums werden in zwei Gestalten verkörpert. Dieses Merkmal, das in Hesses Werken manchmal auch noch in vielen Polpaaren zerlegt dargestellt wird, komme aus dem "Doppelpoligen seiner Persönlichkeit"<sup>42)</sup>, meint Edmund Gnefkow.

Den Grund dieses Doppelpoligen seiner Persönlichkeit können wir schon in seiner Herkunft finden. Sein Vater aus Estland und seine Mutter aus Schwaben, so sieht er sich in zwei Heimaten eingepflanzt. Die Doppel-Existenz, die aus diesen zwei Heimaten resultiert, erklärt seine später bis zur Qual durchlittene, geistige Heimatlosigkeit.

Hesse erkennt die Polarität des Menschendaseins als Schicksal des Menschen und sieht seine Aufgabe darin, die "Doppelmelodie" des Lebens darzustellen. Nach der ersten Krise seines Lebens, in der die Werke *Peter Camenzind*, und *Unter dem Rad* entstehen, genießt Hesse ein angenehmes, aber kurzes Bürgerleben. Mit dem Zweiten Weltkrieg tritt aber die zweite Lebenskrise, die sogenannte "Stirb-und-werde-Epoche" ein. In dieser Zeit befindet sich Hesse nicht nur im Zwiespalt mit der Welt, sondern auch in einer inneren Spaltung, in dem Chaos in sich. Durch das Gespräch mit Dr. Lang und das Studium Jungs und Freuds lernt er das Unbewußte in sich nicht als Ahnung, sondern als analysierbare

42) Edmund Gnefkow: Hermann Hesse, Freiburg 1952, S. 20.

Wirklichkeit kennen. In *Demian* sucht er die Einheit, die Ganzheit der Welt, den Gott Abraxas, der in sich das Göttliche und das Teuflische zusammen trägt. In *Siddhartha* erringt Siddhartha die Einheit, als vollkommene *vita contemplativa* dargestellt, eine reine Geistigkeit, die aber das Leben ausschließt, während in dem darauf folgenden *Narziss und Goldmund* die Polarität wieder als Thema auftaucht. Wie Narziß in seiner Art zu Kastelung und Abstraktion – geistiger Übung – berufen ist, so Goldmund zu seinen feinen und künstlerischen Sinnen – wobei Hesse Goldmunds bacchantischen Jasagen zum Leben den Vorrang einräumt.

Diese einseitige Lösung, die in *Siddhartha* und in *Narziss und Goldmund* auftaucht, wird in den Spätwerken korrigiert. Die Gegensätze werden als die beiden Pole eines Lebens zusammengefaßt, zwischen denen sich das Leben hin- und herschwankend vollzieht. 'Wir sollen nicht aus der *vita activa* in die *vita contemplativa* fliehen, noch umgekehrt, sondern zwischen beiden wechselnd unterwegs sein, in beiden zu Hause sein, an beiden teilhaben'<sup>43)</sup> heißt es im Glasperlenspiel. Im Gedicht *Stufen* kommt dieser Gedanke klar vor. Das Gedicht drückt die Pole als Ausgangspunkte der Bewegung aus, die nach der Vereinigung, nach dem hohen Ziel strebt. Die Gegensätze, die in Knechts Hochzucht des Geistes und Designoris natürlichem Leben gestaltet werden, stellen Theses und Antitheses vom Werden des Menschen dar. Das Leben als Werden wird durch den Begriff der Steigerung ergänzt, die jede Entwicklungsphase begleitet, so daß die Entwicklung sich stufenweise vollzieht. Jedes Werden ist ein Jasagen von Tod zu Geburt, von Geburt zu Tod. Aus dieser Sicht ist der Mensch "absolut heimatlos, ein ewiger Wanderer"<sup>44)</sup>.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wird untersucht, wie das Leben Hesses und auch seine Werke solche Entwicklungsphasen überschreiten.

**[주제어] : 양극성, 단일성, 승화**

**[Schlüsselbegriffe] : Polarität, Einheit, Transzendieren**

**[이메일 주소] : elisa@dongduk.ac.kr**

논문투고일 : 2004. 10. 19 논문심사일 : 2004. 11. 6 게재확정일 : 2004. 11. 16

43) Vgl. Hermann Hesse: Das Gedicht *Stufen* GW 9, S. 488f.

44) Milke Dährendorf: Der "Entwicklungsroman" bei Hermann Hesse, Hamburg 1955 Diss., S. 170.